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시군의회 홍보협력단 홍보대사 위촉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시군협력 홍보단장으로 위촉된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군의장들과 위촉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시·군의원 196명 하계올림픽 유치 나선다

도, 남관우 전주시의장 등 올림픽 유치 홍보대사로 임명
지역사회 결집·전국 홍보 강화... 유치 가능성 높여
도민 공감대 형성부터 대정부 설득까지 총력 유치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시군의회와 힘을 모아 총력전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19일 도내 14개 시군의 회 의원 총 19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 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시군의회 홍보협력단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 했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하나로 결집해 실질적인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홍보협력단을 구성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홍보협력단'은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시 군 홍보 협력 단장으로 임명됐으며,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지역 홍보위

원장으로 참여한다.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을 수립해 전 북이 대한민국 대표 후보 도시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시군의회 의원들 은 △전국적인 유치 홍보 활동 △도민 공감대 형성 △전북자치도의 개최지 선정 촉구 결의 등 다양한 지원 활동 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각 시군별 홍 보 전략을 통해 전북 전역이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강력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설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036 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이 세계적 인 스포츠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

호의 기회"라며, "올림픽이 전북에 개 최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 광,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 특별자치도와 시군의회, 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전주가 대 한민국 대표 후보 도시로 선정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뿐만 아 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중요한 도전"이 라며, "유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시군의회와 도민이 하나가 되어 전방 위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홍보대사들과 함께 중앙정부 설득, 국내 스포츠 네 트워크 활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을 적극 추진하며 올림픽 유치 가 능 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 이다. /이만호 기자

“내란 종식 완수”... 야 5당, 원탁회의 출범

반헌법조사위 구성 등 선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참 여하는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 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정식 출범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 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 대표들 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원탁회의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불행하게도 일부 정치 세력들과 권력 자들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고 이 나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나섰다”며 “안타깝게 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일부 정치 세력 들이 이런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 민생, 평화, 안보가 무너 졌다. 이제 다시 일어서 세워야 한다” 며 “헌정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일부 소수 세력들과 싸워서 헌정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정상적인 나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 고 언급했다.
원탁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개혁신당 을 향해서는 “개혁신당도 함께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원 탁회의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망 상에 빠진 극우 세력이 보수의 주류에 진입했다. 다시는 극우 세력이 제도권 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며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확실한 국 가 대개혁이, 탄대한 연합 정치가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불평등 대책에 대한 합의’,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창진 사회민주당 대표는 “민주 공 화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정치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출범식에서 용혜인(사전 왼쪽부터) 기 본소득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제 연 진보당 대표, 한창진 사회민주당 대표가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혁명 없이는 헌정 파괴 세력의 재집권 을 막을 수 없고 국민의 불안하고 고 통스러운 삶을 끝낼 수도 없다”며 “대 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 정치 의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 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민주주의와 국민 경제, 두 가지 과제 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 치적 연합이 절실하다”고 했고 김제연 진보당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마 지 불복하겠다는 극우 내란 세력을 압 도적 다수의 힘으로 고립시키는 게 급 선무”라고 보았다.
이날 모인 야 5당 대표들은 △윤석 열 대통령 파면 등 내란 종식의 완수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극우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및 민생 경제 살리기 등에 함께한다는 내용 등 이 담긴 공동 선언문도 공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 내

란 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 그 과정에 서 늘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겠 다. 시민사회와도 연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야 5당 대표들은 다음 달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보현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5개 야당 대표들께서 출범식에 앞선 차담 회에서 3월 1일 원탁회의 차원에서 공 동 집회를 열자고 합의하셨다”며 “구 체적 장소는 실무회의에서 논의해야 될 것인데, 대략 광화문 주변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안권 연대가 아니냐는 전망에는 선 을 그었다.
한편 원탁회의는 향후 실무협의체를 토대로 분야별 분과를 구성, 세부 의 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증세정책으로 국민 삶 책임져야”

정의당 도당, 민주당 겨냥 “부자감세 정책 철회” 주장

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오현숙 위원장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집권만을 위한 상속에 완화 등 부자감세 정 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지 속적으로 중도층 포용을 내세우며 친기업, 부자감세, 규제완화 정책 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7일 발 표한 상속에 완화 정책의 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전체 피상속인 약 29만 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 는 약 2만명으로 6.8%에 불과하 다.”고 말하며 이는 “중산층 감세 가 아니라 부자감세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속세 완화의 폐해는 '부의 대물림' 고착화와 부가 소수

에 더욱 집중되게 해 경제적 불평 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서민들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뿐”이라며 “부자감세가 커 지면 커질수록 예산 지출은 정해 져 있어 증산층이나 서민들의 세 액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부자는 더 잘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부의 양극화가 더 욱 심화될 뿐이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심각한 경기 불황 으로 인해 국민의 한숨 소리가 계 속되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부 자감세 정책이 아니라 증세 정책 을 통해 어려운 국민의 삶을 책임 져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 다. /이만호 기자

“지역 의료 수준 끌어올릴 역사적인 순간”

민주 신영대 의원, 군산전북대병원 기공과 관련

군산 시민들의 15년 숙원사업이 었던 군산전북대 병원 이 마침내 첫 삽을 찼다. 기 공식이 열린 19 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 산·김제·부안 갑)은 “군산의 의료 수준을 획기적으 로 끌어올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감 격을 전했다.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은 부지 문제, 예산 부족, 정부의 사업 재검토 위기 등을 극복해야 했던 험난한 과정이었 다. 하지만 신 의원은 부지 매입부터 예산 추가 확보, 정부 설득 등 전 과 정을 주도하며 군산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
이날 기공식에서 신 의원은 “군산전 북대병원은 단순한 종합병원을 넘어

전북 서부권 의료 중심 병원으로 도약 할 것”이라며 “최첨단 의료시설과 심 혈관 특성과 센터를 갖춰, 군산 시민 들이 먼 지역까지 가지 않고도 지역에 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 했다.
신 의원은 “군산전북대병원은 군산 시민들과 주변 지역의 중증환자와 응 급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병원이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 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 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군산시민과 전북대병원 관계자, 전북 자치도와 군산시 관계자들에 깊은 감 사를 전한다”며,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건립 이후에도 끝까지 책 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립 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나서야”

김이재 도의원 “문화산업 경제적 영향력 매우 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김이재 의 원(전주 4)이 김 관영 도지사에게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 에 나설 것을 촉 구하고 나섰다.
김이재 의원은 “스페인 바스크주 정부가 인구 34만 소도시에 불과한 빌바오시에 구겐하 임 미술관을 유치하게 되면서 연간 방 문객 100만명 이상, 한 해 평균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성과를 창출했다” 며 다른 어떤 산업 못지 않게 문화산 업이 곧 지역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앞서 광주광역시가 호남권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이재라도 전북자치도 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전통 문화부터 현대미술까지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상당한 문화적 역량을 이미 충 분히 갖추고 있어 다른 지역과의 경쟁 에서 충분히 우위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에 건립한 과천관을 비롯해 서울관, 덕수궁관 등

수도권에만 있었으나 2018년 최초로 청주관을 개원하며 지방분원시대를 열었다. 이어 경성권에서는 경남 진주 시가,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지 방분원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진주시 의 경우 현재 건립 타당성 연구가 진 행 중이며(문화부) 광주광역시의 경우 는 시 예산으로 자체 건립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 상태다.
김 의원은 “국립현대미술관 지방분 원 유치는 단순히 문화시설 하나 짓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문화산업을 유치하 는 개념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며 “매력적인 문화시설과 문화콘텐츠는 국 내외 관광객을 끌어 모을 수 있고, 사람 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듯 자연스럽게 민자유치까지 유도할 수 있어 참채된 지역경제 전체를 되살릴 수 있는 마스 터 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김관영 지사에게 지금 당장 국립현대미술관 전주 분원 유치 위원회를 조직해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야 하며, 또한 지역에서는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대외적 으로는 건립 타당성 용역예산을 제1차 정부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손중열 남원시의원, 남원시체육회 등과 소통간담회

남원시의회 손 중열 의원(자치 행 정 위 원 장)이 지난 14일 남원 시 체육회 및 중 목단체와 소통간 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는 남원시 체육 회 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소통간담회는

지난해 남원시체육회 자체감사로 야 기된 갈등과 불신을 허심탄회하게 토 로하는 자리로, 종목단체들은 작년 감 사 지적 사항들은 사업계획서 작성부 터 정산 과정의 착오 등 점진화된 인 력의 부재가 원인임을 자각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정산 과정의 점진성에 특 화된 인력이 부족한 종목단체에 책임 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연국 전북자치도의원

대한민국헌정회 상장 수상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장연국 의 원이 지난 18일 지방자치와 지방 의회 정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장으로부터 상장 을 수상했다. 시상은 양행두 자문위원 의 대독을 통해 이루어졌다.
장연국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12 대 도의회에 입성한 이후 전반기 교육 위원회를 거쳐 후반기인 현재는 문화 안전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 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는 행복 한 학교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 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현 소속인 문 화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 공 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헌정회는 전직 국회의 원들의 모임인 사단법인으로서 초정 파적인 국가원로단체이며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을 설립 및 운영의 근 거로 삼고 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19일 1일 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임시회를 개최 했다.
이날 김광훈 의원은 본회의 5분 발 언에서 “청년들의 지역 이탈 문제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닌 장수군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청년 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중?장 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김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 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 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공공기관 1화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감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에 장정복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한국희 의원을 비롯하여,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 명(김종철, 신봉수, 신인식, 정훈모, 최 채원 위원)을 선임했으며, 김광훈 의 원이 대표발의한 ‘2036 하계올림픽 전 북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의결했 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20건 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1화용품 없는 축제, 축제의 새로운 시대’라는 주제를 통해 1화용품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마 렘을 촉구했다.
송기승 의원은 빈집정비 예산확보와 다양한 아이템 발굴을 건의했으며, 최 재기 의원은 명봉도서관과 수확정성길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안건심의를 의회운영위원회(위 원장 최재기)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 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교섭단 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 건에 대해 가결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 서항경 의 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 건에 대해 가결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 관으로 고경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가결했다.
이어, 서항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촉 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 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